

5. 요나 -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가신다!”

요나 4: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 .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무척 친근한 예언서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이야기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유심히 예언서를 본다면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하여, 요나서는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해 나가며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갑니다.

배를 타고가다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결국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지쳐, 해를 피하기 위해 앉아 있던 곳에서 뉘쿨이 말라버리자 뜨거운 태양아래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하소연 하는 이야기 등. 어쩌면 예언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예언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는 유일하게 요엘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엘 역시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요나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낸 유일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인 앗수르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앗수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제 3자의 관점에서 보면서, 요나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동산지기들과 하와이에서 위로회를 가지며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숙소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틀었던 TV에서 ‘갯둥이’라는 2014년에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20회 분량을 다 보았으니 말입니다.

갯둥이는 희대의 살인마로 9번에 걸쳐 연쇄 살인을 저지른 범인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갯둥이라는 살인마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인마의 교묘한 살인 수법으로 인해 살인자로 오해를 받아야 했던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코 패스’라는 특징을 가진 살인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나쁜 놈들이죠.

결국 이 연쇄 살인마를 쫓던 형사에 의해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만, 얼마나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른 놈인지 모릅니다. 극중 주인공과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살인자라는 많은 정황증거들이 존재하지만, 공소시효도 지났고,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살인마 갯둥이 때문에 살인자로 오해를 받아 죽은 아버지의 무고를 밝히려는 하무염 형사,

연쇄살인범 때문에 사고로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다 죽은 딸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특별수사본부장 오철곤 수사과장,

그리고 9번째 연쇄살인극에서 어린시절 친구와 함께 살인범에게 잡혔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격자 오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마리아는 살인마의 강압에 의해 친구와 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이유로 단짝 이었던 친구는 살해당하고 자신만 살아남아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녀 역시 살인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과 의사가 되어 살인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싶어 하고, 왜 그 살인범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흉악한 죄를 지은 자를 찾아서 잡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피해자 중에 하나였던 여자 주인공 ‘오마리아’는 정신과 의사가 되어 범인을 뒤쫓았고,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 범인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방법이 없어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오 마리아는 스스로 범인이 정상이 아닌 ‘다중 인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 죄책감, 그리고 용서도 가능하니 말입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범죄와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비극을 제 삼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남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참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받아들이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다르다는 것이죠.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객관적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을 약탈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겠다고 하니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 하라는 것은,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일 때는 받아들여지는데, 자신의 원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다시스’는 오늘 날 스페인의 한 도시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반대쪽으로 도망가다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요나의 기대는 구원이 아닌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대와는 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방법과 결과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무척 당황스럽죠. 하지만 인간들이 당황스러운 것일 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그의 속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요나 앞에 그가 정말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났지만, 요나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요나서 3장 8-9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나는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아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정작 이방의 왕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실낱같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는 말에서 보이는 것처럼, 니느웨의 왕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의 끈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그치시기를 바라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붙들고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제 3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은가요?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악인은 악인으로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하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못된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막넙콩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작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보편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지는 두 가지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니느웨 백성들은 죄인으로 보면서 자신은 그렇게 큰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들의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민족주의와 우월주의 그리고 선민의식, 배리배적인 위선적인 행동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행태들입니다.

요나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면,

‘니느웨’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

네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니느웨 사람들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

너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니느웨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말입니다

요엘과 마찬가지로 요나서는 신앙적 지경을 온 세상 백성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범 우주적인 역사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서 용서와 사랑은 늘 반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우리에게는 때로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가 우리의 마음에서 용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원수를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고 용서한 사람이니 ‘원자탄급’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요나서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는 일들을 평범하게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통해 배우는 ‘영적 분별력’

또 하나 놀라운 일.

요나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요 사건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여기서 ‘요’는 ‘바로’라는 뜻이고 ‘나’는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요나서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식 표현으로 ‘요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요나’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다는 것.
결국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인 듯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에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신학적 논쟁을 하는 두 명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논점은 천국에 가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본래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일지, 아니면 전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으니 헬라어
일지.
그런데 묘하게도 두 사람이 함께 죽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안녕 하세요!’
우리의 지식, 경험, 언어, 생각,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교황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천국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애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 교황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오래전에 루터가 자물쇠를 바꾸어 놓았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살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늘 상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마음을 알 때까지 그 과정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의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순례’의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훈련과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에 나오는 글입니다 .
“클리마쿠스는 분별력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마음과 몸과 말이 깨끗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게리 토마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 이 거룩함과 분별력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해 집니다.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눈길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욕을 먹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며,

절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때로는 영적 ‘무지함’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 고집’에서 기인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적분별력이 상실되면 우리는 ‘부도덕’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부도덕함이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요나의 마음에서 부도덕이란,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부도덕이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의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깨끗한 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입맛과 영적 취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본 음식점이 맥도널드와 버거킹, 그리고 KFC와 Pizza Hut 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건강’이라는 관점으로 식사를 하게 되니, 사방에 ‘먹을 곳’이 많지 않더군요.

그런데 먹을 곳이 없다는 말이, 그 먹을 것에 대한 입맛을 잃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취향이 달라지면 옛 습관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지나쳤던 것들에 대하여 민감해 지고,

재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에 대하여 여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책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대부분 아직 미혼인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이루어주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결혼만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이거, 이거, 이거는 안돼요,’ 하는 게 있다. ‘하나님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바란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허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움츠러든다.

“하나님, 여긴 제 영역이에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방해만 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타협이 안돼요,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움켜쥐는 것이 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대학진학 문제가 특히 그렇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하는 방식에 그런 요소가 많다. 혹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봐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면서 막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이 책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다루시기를 소망한다.

1) 요나가 물 속에 던져지다(1:1~2:10)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앗수르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도록 명령하시자, 요나는 달아난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의 표를 끊는다.

하나님은 배를 거의 삼킬 듯한 폭풍을 보내신다. 결국 선원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한다. 요나는 자신이 이 곤경의 원인이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한다. 처음엔 선원들도 요나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아무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다.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요나는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으며, 거기서 자신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알아듣기 어려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러자 물고기는 그를 해변으로 토해버린다.

2)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다(3:1~10)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시지를 전한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4)

무엇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앗수르 사람들은 타국에서 온 낯선 사람의 말을 믿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앗수르 사람들과 심지어 왕까지도 먹기와 마시기를 기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재 가운데 앉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애통함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물들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획한 것과 달리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3)요나가 자기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다(4:1~10)

요나는 화가 났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4:2~3)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성경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선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설득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결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바라는 성공은 니느웨 사람들 십 이만 명이 제거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니느웨가 그렇게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본문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이다.